

네이버 치지직, e스포츠 독점 중계로 스트리밍 시장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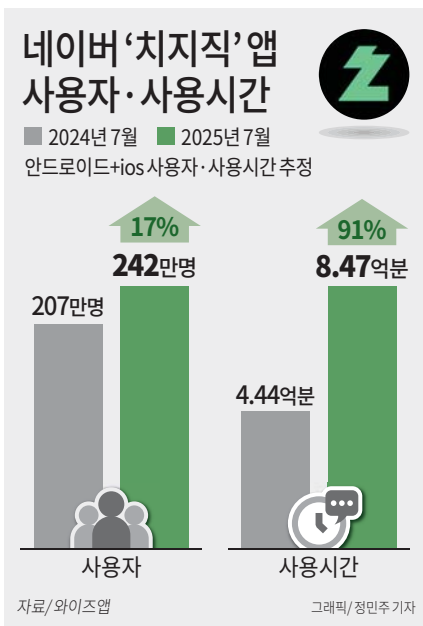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사용시간 각각 242만명·8억4700만분 기록

올해 EWC 한국어 독점 중계권 확보
결승전 당시 동시 시청자 53만명
버추얼·팬덤 커머스 등 서비스 확대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7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와 사용시간 모두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 1위를 공고히 했다.

18일 IT업계와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치지직의 7월 MAU는 2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사용 시간은 4억4400만 분에서 8억4700만 분으로 91% 급증해 앱 출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성장 배경에는 올해부터 확보한 e스포츠월드컵(EWC) 한국어 독점 중계권



이 있다. 치지직은 결승전 당시 동시 시청자 53만 명, 월간 누적 시청자 15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EWC는 지난해 온라인 시청자 5

억 명, 현장 방문객 26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경쟁사 SOOP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모바일인덱스 집계 기준 7월 SOOP(쑤)의 MAU는 172만 명으로 치지직과 약 70만 명 차이가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트위치 철수 이후 치지직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며 스트리밍 플랫폼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지직은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와 게임 특화 편성으로 플랫폼 체류 시간을 끌어올렸고 연간 방송 송출 건수는 48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20%가 버추얼 크리에이터 방송이다.

네이버는 성남 사옥에 3D 제작 스튜디오 '모션스테이지'를 구축해 버추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수익화 모델도 확대됐다. 사용자가 회차별 콘텐츠를 구매해 시청하는 '프라임 콘텐츠' 서비스를 도입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

중계 등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

또 '같이보기' 기능을 부분 유료화하고 응원과 굿즈 판매를 통해 팬덤 커머스를 강화했다. 기술적 투자도 병행했다. 치지직은 AI 기반 실시간 번역과 TTS, 4K 고화질 송출을 적용해 글로벌 시청자 접근성과 사용 경험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네이버 콘텐츠 부문 매출의 16%를 차지하며 주요 수익 축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치지직이 e스포츠 독점 중계와 버추얼 콘텐츠, 팬덤 커머스를 결합해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며 "SOOP과의 격차는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치지직은 단순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넘어 네이버 전체 콘텐츠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지는

네이버의 콘텐츠 밸류체인에서 실시간 방송과 팬덤 커머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으며 독점 중계와 버추얼 IP 육성은 타 콘텐츠 사업과의 시너지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치지직이 확보한 실시간 팬덤이 네이버의 글로벌 콘텐츠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하면 치지직은 MAU 242만 명, 사용 시간 8억4700만 분이라는 성과로 국내 스트리밍 시장 1위 자리를 굳혔고 콘텐츠 전략, 기술 기반 강화, 수익화 모델이 맞물리며 플랫폼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는 치지직을 중심으로 e스포츠와 스포츠 중계, 버추얼 IP 사업, 팬덤 커머스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허브로 확장하며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컴위드, 상반기 영업이익 25억… 749.9% ↑ (전년비)

매출 3466억 기록… 64.6% 늘어
자회사 한컴금거래소 실적상승 견인
금 투자 수요 급증에 판매이익 늘어

한컴위드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346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18일 한컴위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9.9% 급증했다. 2분기 매출도 186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4% 성장하며 호실적을 이어갔다.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은 자회사 한컴금거래소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 판매 이익이 늘었고, 이 흐름이 그룹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한컴위드는 이를 기반으로 아로와나 허브와 함께 금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하반기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RWA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그룹 지배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 한글과컴퓨터 지분을 추가 매입해 26.73%까지 늘리며 실질적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AI, 데이터, 국방 등 핵심 산업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한컴은 정부 독자 AI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 한컴인스페이스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국방 분야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최빛나 기자

구글, 초소형 AI 모델 '젬마3 270M' 공개

2억7000만개 매개변수로 구성

구글이 2억7000만개 매개변수로 구성된 초소형 인공지능(AI) 모델 '젬마3 270M'을 허깅페이스, 캐글 등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젬마3 270M은 ▲압축된 구조와 낮은 전력 소비 ▲지시사항 준수 성능 ▲양자화 인식 학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전체 매개변수 중 약 1억7000만개는 임베딩 매개변수이며, 나머지는 변동형 블록 매개변수로 구성돼 특정 도메인이나 언어에 맞춰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전력 효율성이다. 픽

셀9 프로에서 시험한 결과, 25회 통화 기준 배터리 소모량은 0.75%에 불과했다. SK텔레콤과 스타트업 어댑티브 ML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도 대규모 범용 모델 대신 젬마3 270M을 활용해 다국어 콘텐츠 관리 작업에서 효율성을 입증했다.

구글은 개발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와 최적화 가이드를 함께 제공했다. 구글 관계자는 "젬마3 270M은 맞춤형 솔루션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개발자들이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SK AX-HD한국조선해양 제조분야 AX 협력

SK AX는 18일 HD한국조선해양과 '제조 분야 AX 혁신을 위한 공동 과제 발굴 및 실행 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렸으며, 양사 주요 경영진과 기술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과 솔루션을 기획·실증하고, 이를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모델로 발전시켜 사업화하는 것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설계와 건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스마트십·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해왔다. SK AX는 제조 AI 분야 경험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공동 설계·개발해 현장에 최적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은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반 협력 체계다. 선박 설계부터 생산, 인도 과정까지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공 의존도를 낮추며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설계·생산 명장 에이전트 개발 ▲등대 공장 프로젝트 연계 ▲파블릭 클라우드 기반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seoh@

‘페이커’ 이상혁, LCK 최초 700승 달성

데뷔 이후 13년 만에 세운 기록

‘페이커’ 이상혁이 LCK 최초 700승 고지에 오르며 e스포츠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18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 따르면 이상혁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열린 2025 LCK 서머 4라운드 2주 차 경기에서 kt 롤스터를 상대로 팀 승리를 이끌며 개인 통산 700승을 달성했다. 2013년 데뷔 이후 13년 만에 세운 기록으로, LCK 사상 첫 사례다.

이상혁의 700승은 현재 2위인 한화생명 e스포츠 정글러 '피넛' 한왕호의 532승과 170승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4월 LCK 최초 1000경기 출전을 달성한 데 이어 또다시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현재까지 이상혁은 총 1054경기에 출전해 703승을 기록, 승률 66.7%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상혁 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나왔다. 한왕호는 17일 젠지전에서 정글러 최초로 LCK 통산 800경기 출전에 도달했으며, 전체 선수 중 네 번째 보유자를 기록했다.



LCK 최초 700승을 달성한 '페이커' 이상혁 /LCK

디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허수는 LCK 통산 400승을 기록했고, 한화생명 e스포츠의 '바이퍼' 박도현과 BNK 피어엑스의 '켈린' 김형규는 각각 500경기 출전 고지에 올랐다. 디플러스 기아 서포터 '베릴' 조건희는 서포터 최초 500킬 기록을 달성했다.

정규 시즌 판도도 막바지로 접어들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 레전드 그룹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승차가 벌어져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사실상 운곽을 드러냈다. 반면 라이즈 그룹에서는 3위 자리를 놓고 OK저축은행 브리온과 DRX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DRX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최빛나 기자

ARS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가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를 개편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고객들의 상담사 연결 요청 후 대기 시간을 최대 6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구에게나 같은 상담 메뉴가 제공됐다. 1번 요금 및 납부 문의, 2번 휴대전화 문의, 3번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문의, 4번 가입정보 확인 등의 순서였다. 이로 인해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안내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유형별 ARS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적용했다.

보이는 ARS 또한 기존 단순 목록을 카드 형식으로 변경해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가 보이도록 메뉴를 개편했다. 고객 특성에 맞춘 최적화 메뉴를 최상단에 배치함과 동시에 자주 사용하는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상담사가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메뉴, 최근 이용 메뉴도 제공해 고객의 탐색 시간을 줄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상담 요청 후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모바일과 홈(IPTV·인터넷)에서 각각 16초, 14.7초가 걸린 상담사 연결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 7월 기준 6.7초와 3.7초로 줄었다.

상담사 연결 없이 셀프 처리하는 건수가 지난 3월은 일 평균 868건이었으나 4월엔 3746건으로 약 4배로 늘면서 상담사의 응답 시간이 빨라졌다.

/김서현 기자